

또 직장發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제주시 직장' 지난달 27일 첫 발생 후 총 25명 확진 어제 16명 감염... 도 "도내 확진자 접촉이 대부분"

이달 들어서도 계속해 두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시 소재 한 직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20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제주시 직장 5'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12명(1753~1764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16명(1765~1780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8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16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타지역 입도 관광객 2명 등이다.

특히 최근 제주시 소재 한 직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시 직장 5' 집단감염 사례가 생겨났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직장 내 동선이 겹쳤던 동료들이 양성 판정 받으면서 현재

까지 총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방역당국은 지표환자로 추정되는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시 소재 한 직장 동선과 관련해 연관성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신규 집단사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방역당국과 제주국제공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집단감염은 제주공항 내 지상조업서비스 관련 업체에서 시작됐다. 확진자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동선이 겹치고 일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말이 확산되면서 감염이 전파됐던 것으로 도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날 도내 확진자 접촉자 14명 중 7명이 '제주시 직장 5'와 관련됐으며, 1명은 제주시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6명은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개별사례로 이들 중 3명은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청북도,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입도한 여행객 2명도 확진됐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일 개학한 제주시 노형동 한라중학교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시동'

어제 한라중 학생 전원 등교... 교육당국 코로나 확산 변수 촉각

2일 한라중학교가 제주 도내 학교 중 처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8월 중 도내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맞는 가운데 모든 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교육당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대학교는 코로나19 추이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구상원 협의를 거쳐 2/3등교수업이 이

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첫 2학기 개학을 맞은 한라중은 이날 학년별 시차 등교, 정·후문을 활용한 분산 등교로 올 들어 처음으로 1~3학년 전체 학생 등교수업이 이뤄졌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과 본청 관계자들은 학교를 찾아가 등교 수업 현장을 살펴보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교육감은 "오랜 시간 이어진 부모님과 교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2학기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의 설렘과 희망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안전 유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학교가 8월 둘째·셋째주 개학해 등교수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현재 집중방역주간(개학 전 1주~개학 후 2주)을 운영하며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학기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제주지역은 거리두기 3

교육청 임용시험 23명 합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3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19명 ▷교육행정(장애인) 2명 ▷교육행정(저소득층) 1명 ▷사서 1명이다.

성별은 남자 7명(30%) 여자 16명(70%)이며, 연령대는 20대 15명(66%), 30대 6명(26%), 40대 2명(8%)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일까지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고, 2주간 기본교육 훈련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임용계획에 따라 임용될 예정이다. 오로지기자

단계까지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3단계에서는 초 600명 이상, 중·고 600명 이상, 평준화 일반고 등 과대학교는 2/3 등교수업이 원칙이지만 학교구성원 협의 및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단 2/3 등교수업 시에도 유치원과 초·1~3학년은 밀집도 조치 적용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수업을 하게 된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및 직업계고도 3단계까지 전체등교가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대학교는 등교수업 시기 확진자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교수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나기도 무더위 식히지 못할 듯"

제주 3일까지 비 날씨 예보 낮 최고기온은 30℃ 웃돌아 기상청 "당분간 폭염 지속"

제주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겠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3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어 같은날 낮부터 오후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산지와 서부중산간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3일 오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10~60mm이며, 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리는 소나기의 강수량은

5~50mm로 예상됐다.

비 소식에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올라 기상청이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1~32℃를 보이겠다고 4일에도 아침 최저기온 26℃ 내외, 낮 최고기온 31~33℃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고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보건·농축산업·수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어제 제주시 도심지 2만여가구 정전 소동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도심 일대에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한 소동이 벌어졌다.

2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7분쯤 제주시 용담동과 도남동, 오라동, 이도동, 일도동, 아라동 등 2만19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4분만인 오전

10시41분쯤 복구돼 다시 정상 공급됐다. 이번 정전은 제주시 삼양동 등 제주변환소 내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추후 복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만 7~18세 1인당 10만원

신청 대상은 6월 1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보호자의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지금 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 등이 신청자 휴대폰으로 안내된다.

고동 채취하던 50대 숨져

해상에서 고동(보말)을 채취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해상에서 보말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한 A(58)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해경 구조대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p>당선</p> <p>전국 시·군·구 체육회장협의회 회장</p> <p>김종호(44회)</p>	<p>수훈</p> <p>녹조근정훈장</p> <p>고숙희(50회)</p>	<p>수상</p> <p>녹조근정훈장</p> <p>홍제선(50회)</p>	<p>취임</p> <p>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p> <p>한상훈(52회)</p>
---	--	--	---

당선·수훈·수상·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천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경민 외 회원일동

수상

대통령상

송지영

(부산 금명초등학교 교사)
(제주여고 51회, 제주교육대학 43회)
부 : 송태중(前 KT, 前 상명복지재단 제주원 근무) · 모 : 이순복

한국교통주최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들
(송두식·고광연·오기종)